

8대 군산시의회 원구성 놓고 시작 전부터 신경전

다수당 민주당과 소수당 의원들 간 갈등 심화 소수당 당선인들 협치 요구 성명서 발표 내일 의회 원구성 앞두고 정가 촉각 곤두세워

초당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내세운 8대 군산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3명의 의원 중에 14명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에 6선의 김경구 의원이 부의장에는 4선의 서동환 의원이 각각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반기 의장 후보에 5선의 김성곤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위원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김경구 의원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배형원, 설경민 의원과 민주평화당 서동수, 정의당 정지숙 당선인을 비롯해 무소속 김영일, 김우민, 유선우, 정길수, 한안길 당선인 등 9명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회귀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며 초당적 협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후 소수정당 및 무소

속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며 의장에 3선의 김영일 의원을 부의장에 3선의 유선우 의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9명의 소수정당 의원들은 “변화와 도약을 내세운 시의회가 당을 넘어 소통과 배려, 협력을 통한 상생의 초석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5석 중 2석을 양보해 하나 된 8대 군산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일 제21회 임시회 전반기 시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지역 정가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예측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소수정당 후보들의 1대 1 구도에서 다수당의 14명 의원 전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질지에 대해서도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매년 원구성을 놓고 반복되는 다수당과 소수정당의 불협화음이 자칫 오랜 갈등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3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투표로 선출하고 4일 상임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여성농업인 대상 문화·학습활동 지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비우려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다양한 문화·학습활동을 할 수 있어 여성농업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생생카드의 지원 대상 연령층을 높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까지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며 단, 만 20세~24세 기혼 여성농업인도 지난해처럼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받은 생생카드는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관광여행사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수령장, 사유나, 미용실, 서점, 회원 영화관,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추가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드론 활용한 외래해충 방제교육 실시 큰 호응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 약용자원연구소는 오미자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외래해충 방제교육을 실시, 참여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오미자 재배면적은 374ha로 전국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상기상 및 외래해충의 유입으로 품질하락과 수량감소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 드론을 활용한 해충방제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

성층은 다음해에 결실을 맺는 활기에 알을 낳아 신초를 고사시켜 수량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성충과 유충 모두 이동성이 높고 밤나무, 무릎나무 등과 같은 활엽수에서 기주한 후 한 번에 많은 개체수가 오미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완벽한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성대학교 드론교육센터 김창수 교수(전북무인항공교육원 대표)를 초빙, 드론교육과 함께 드론사용법 체험을 진행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김효진 연구사는 “방제가 어려운 산간지역은 드론방제 전문가가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방제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방제해주기 때문에 인력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외래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 전체가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도심내 여름꽃 식재로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

145개 기관단체·학교 여름꽃 7만2천본 배부
익산시가 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워낸 메리골드, 일일초, 채송화, 금계국, 백일홍, 배고야 등 여름꽃 25만본을 주요도로변 및 교통섬에 식재해 전국체전 분위기를 띄우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 만들기를 통해 145개 기관단체 및 학교에 여름꽃 7만 2천본을 배부, 직접 식재토록 추진하였으며 계절별로 꽃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9월에 도 가을꽃을 배부할 계획이다. 꽃을 식재한 학교 관계자는 “미래의 익산 주역인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들이 직접 꽃을 가꾸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간 100만본에 달하는 꽃을 시 양묘장에서 직접 길러 주



익산시가 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워낸 여름꽃 25만본을 주요도로변 및 교통섬에 식재해 전국체전 분위기를 띄우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고 있으며 특히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꽃담 및 토퍼아트 조성 및 특색 있는 꽃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분기별로 영화를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 무료영화상영 도서관 테마영상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마법에 걸린 성에서 마법 같은 사랑에 빠진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미녀와 야수를 상영하며 8월 29일에는 배우 조정석과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 도경수가 출연해 감동적인 브로맨스를 펼친 코미디영화 ‘형’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연휴인 9월에는 상영을 하지 않고 10월 31일에는 호주로 입양된 후 구글어스를 통해 2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한 남자의 감동실화 ‘LON’을 상영한다. 도서관 테마영상실은 군산시립도서관 지하 1층 새만금드림홀에서 선착순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454-5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튀니지가스전기공사, 수상태양광발전 관련 군산 방문

익산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자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현장방문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근의 국가인 튀니지가스공사 임원진 일행이 수상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 곳곳을 다니며 군산시와 사업시행자인 피앤디솔라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심히 듣고 메모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시를 방문한 임원진 대표는 통역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 튀니지와 대한민국은 두터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군산을 방문한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중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좋은 기술들을 살펴보고 접목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튀니지로 돌아가 조만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한국이 꼭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렇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좋은 답변을 해주신 군산시 관계자들과 피앤디솔라,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나정식 피앤디솔라 공동대표는 “35% 이상의 공정이 마무리돼 수상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있는 튀니지가스 전기공사 임원들에게 조립, 배선 등 공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저희 군산을 방문한 튀니지가스전기공사 임원진들을 환영하고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국가산업단,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일자리 창출사업 탄력

익산국가혁신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선정,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선정이 조배숙 의원의 지속적인 역할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산업부는 서울디지털, 반월·시화, 구미, 창원, 익산 광주 6개 국가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청년 창업 임대공간 및 편의지원 시설 구축을 위한 휴폐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며, 익산국가산업단은 중소기업 밀집형으로 근로환경 개선, 업종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선정 평가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